



지역 추상미술의 다채로운 면면을 만날 수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 전 모습. 김유섭 작가(왼쪽)와 박은수 작가의 작품.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

#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재구성

지역 추상 현주소... 중진작가초대전, 3월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김유섭·박은수·강운·이승하·정광희·서정민 작가 작품 40여점 전시

공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생산물도 공간을 압도하는 대작들이 눈길을 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작가는 김유섭이다. 회화의 근본을 찾는 실험, '빛'에 대한 탐구에 몰두해온 작가는 검은색과 흰색이 주조를 이룬 작업과 역동적인 원색을 화면에 쏟아부은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자유분방한 터치와 검은 화면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푸른 하늘이 눈길을 끌며 붉은색과 노란색 등 강렬한 원색을 과감하게 활용해 만들어낸 역동적인 조형성, 화면의 거친 붓자국과 자유로운 선도 인상적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점에 천착해 온 작가는 '인류세' 연작도 선보이고 있다. 작품 앞 의자에 앉아 박은수 작가의 대작을 보고 있자면 '색의 바다'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가까이서 보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캔버스 위에 두툼하게 얹힌 재료와 어우러져 또 다른 조형성을 만들어냄을 알 수 있다. 재료에 대한 실험을 끝없이 해온 그는 종이를 마치 물감처럼 활용한다. 캔버

스에 얇게 쓴 신문지를 수십번 올려 쌓은 후 말리고 깎아내는 일을 반복하는 지남한 작업이다. 그는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진 색채 추상을 통해 은유적인, 자신만의 도시 풍경화를 만들어낸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작업을 줄곧 해온 이승하 작가는 '리얼리티 사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 전시작 '무제의 공간' 시리즈는 반복적으로 먹물을 물에 떨어뜨린 후 먹물의 농도에 따른 변화무쌍한 움직임과 형태를 영상에 담은 작품이다. 파란색 조명과 사운드가 어우러진 영상 작품은 치유의 기운을 전한다. 구름, 마음 등의 변화를 화면에 담아온 강운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상을 관찰한 후 다양한 색상과 묘법의 실험을 통해 표현한 '마음 산책' 시리즈를 전시 중이다. 강렬한 붉은색을 기조로 조성된 전시공간에 걸린 수십여점의 '마음산책' 연작은 개인의 아픔, 5·18, 코로나19 등 상처를 드러낸 후 이를 치유해 가는 과

정을 보여준다. 작가는 "전시작들은 반려 기억을 꺼내어 캔버스에 일일이 써내려가고, 이후 치유의 색으로 덧댄 결과물로 관객과 함께 치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묵에 대한 다양한 사유와 실험을 거듭해온 정광희 작가는 자신의 출발점인 서예의 특성을 살린 작품을 선보인다. '자성의 길'은 한지 조각, 먹, 젓가락을 사용한 작품으로 백토 물에 그릇을 통째로 담가 분장하는 분장사기 담금 분장 기법과 한 획을 단숨에 긋는 서예의 일 획과의 일치점에서 착안했다. 먹이 묻은 한지를 등골에 맡아 일일이 화면에 붙여 색다른 조형성을 만들어냈다. 한지로 만든 선(線)을 캔버스 위에 조형화해온 서정민 작가의 작품 앞에 선 관람객들은 한참을 머문다. 한지를 동그랗게 말고, 자르고, 일정한 크기로 토막 내 선을 만드는 일련의 작업은 마치 수련의 과정처럼 보인다. 특히 검은색과 흰색의 집합 속에서 도드라지는 붉은 색이 인상적인 '함성' 시리즈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또 노란색과 검은색의 커다란 원통형 한지를 활용한 '선' 시리즈는 작업 방식이 궁금해지는 작품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광희 작가 시민참여프로젝트 '나를 긋는다' (일부)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재선

## “새로운 형태의 예술시장 추진할 것”

광주예총 제11대 회장선거에서 현 회장인 임원식(사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광주예총은 15일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 선거에서 임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회장의 임기는 4년. 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총 80표 가운데 43표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경쟁자인 김종원 건축가협회 회장은 36표를 득표했다. 이번 재선으로 임 회장은 기존에 해왔던 예총 관련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통과 통합의 힘 있는 광주예총'을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시장 추진', '교류를 통한 지역예술 역량 강화', '회원의 권리와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 임기 중 3년은 지구촌의 유례없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은 누구보다 시련의



연속이었고 그로 인해 예총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광주예총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의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문인협회 회장과 광주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임 회장은 그동안 시인과 평론가로 활동해왔다. 광주문화상, 광주시인대상 예술부문, 한국예총문화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시집 18권을 포함해 34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4TH GWANGJU BIENNALE  
14TH 광주비엔날레  
4.07-7.09

비엔날레통합권  
양인 20,000원

물처럼  
Soft and Weak  
부드럽고  
like Water  
여리게

meet design

2023 KWANGJU DESIGN BIENNALE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07-11.07

비엔날레통합권  
양인 20,000원

광주비엔날레  
4월7일~7월9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7일~11월7일

## 예술로 즐기는 광주 여행

통합티켓·1박2일권·시민 할인권·콘텐츠 발굴 이벤트

‘광주로의 행복한 예술여행.’ 올해는 지역의 대표축제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해다.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간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열린다.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가 주제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관람객을 만난다. 두 개의 메타등급 이벤트를 앞두고 행사를 주최하는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박양우)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이 통합티켓을 발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시작했다. 또 광주관광재단도 예술여행 이벤트를 개최하며 문화관광을 선도한다.

은 비엔날레 개막 후 현장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2만 4000원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시민 할인권 도입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제10회, 20주년을 맞는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해 광주시민 우대할인권을 도입했다. 성인의 경우 입장권 1만 6000원을 3000원 할인된 1만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3월부터 티켓링크, 네이버 등에서 판매하며 사전 예매 구입시 1만 2000원이다. 통합 입장권은 비엔날레와디자인비엔날레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티켓으로 가격은 성인의 경우 2만 2000원이다.

#광주비엔날레 1박2일 예술여행-2일권 발행 개막을 50일 앞둔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기간이 역대 최장인 만큼 많은 외지인들이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2일권 입장권을 개발했다. 또 KTX 및 SRT 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패키지도 3월부터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본전시관이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라자 등으로 확장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양림동 이이남스튜디오 등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매 입장권은 개막전인 4월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 네이버 예매 등에서 구입가능하며 현장 판매보다 최대 40% 저렴하다. 성인 티켓은 1만 6000원을 1만 2000원에, 청소년은 7000원을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2일권

#광주관광재단-예술여행 콘텐츠 공모 비엔날레 도시 광주의 매력을 상품화하고 광주에 예술여행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광주관광재단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광주 예술여행 콘텐츠 및 상품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단체(사업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단 예술 콘텐츠로 판매 가능한 상품이어야 하며 주1회 이상 상품 정기 운영과 관광객 상품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개별여행을 대상으로 한 예술 또는 예술지원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예술체험, 도슨트 투어 등)로 1~2차 전문가 평가를 거친다. 최종 선정된 당선작은 OTA 플랫폼 등록, 홍보물 제작지원, 예술여행 기획권 지원 등을 받는다. 24일 오후 5시까지 광주관광재단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 전문인 역량 강화 수료생 작품 7편 전시

### 19일까지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형)이 진행한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수료생'(수료생)의 3차원 영상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오는 19일까지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ACC는 수료생 중 7명의 작품 7편을 하늘마당 미디어큐브에 상영한다. 이번 상영작은 ACC가 지난해 개최한 '매체확장(언리얼 엔진) 교육' 참여자들이 제작한 3차원 영상 작품이다. 정승 작가는 작품 '워킹 언더 문'을 통해 우주 스페이스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윤지민 수료생은 '플로팅'에서 동등 떠 있는 내면을 형상화했다. 이밖에 김수진 '변화'를 비롯해 김은솔 '잇 프럼 비트', 김하린 '리팬터 네이처', 박시내 '워터 루인스', 최찬별 '저밀도 수립' 등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ACC는 아시아 문화지원을 주제로 올해 ACC 전문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미디어큐브에 상영중인 수료생 작품. <ACC 제공>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